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감수 : 이언경 · 담당자 : 권보배 전화번호 : 051-797-4774 · E-mail : ekleee@kmi.re.kr / b2kwon@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우리나라, '23년 3분기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LSCI) 2위...1위는 여전히 중국이 차지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세관 업무 개선
- 스코다,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전기차 수출
개시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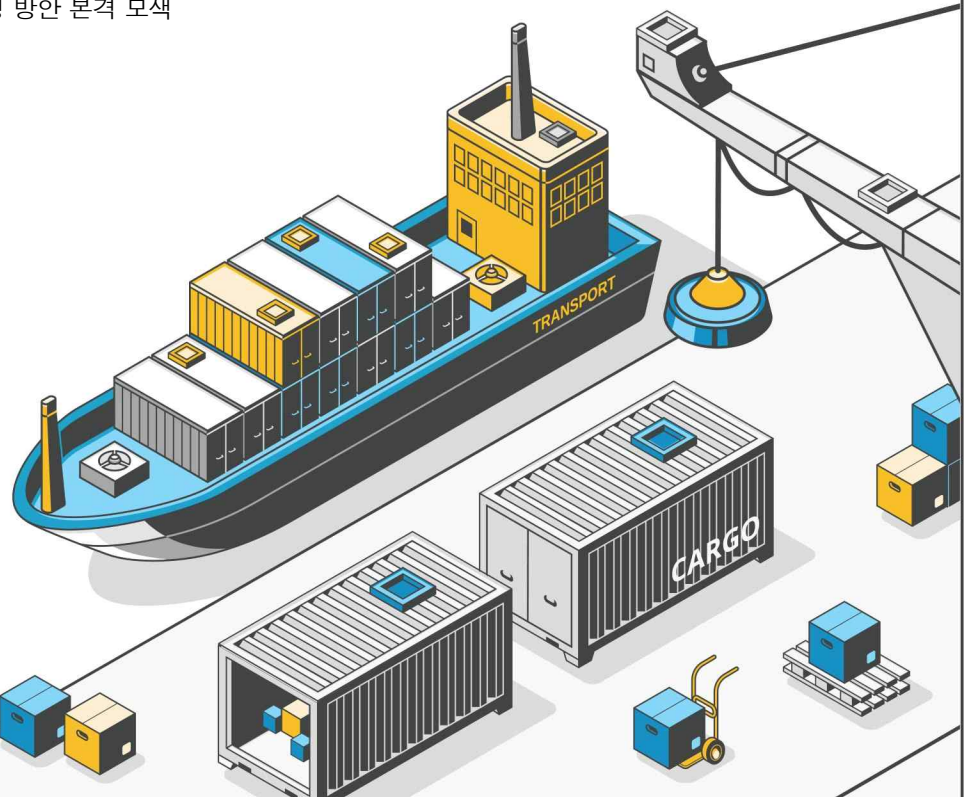
- APM Terminal, 플레키마인즈항 신규
컨터미널에 5억달러 투자 계획
- 페루 찬카이항 운영 방안 본격 모색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홍해 리스크로 유럽 물류시장 피해 확산
... 제조업 생산 차질 지속 전망

● 공지사항

-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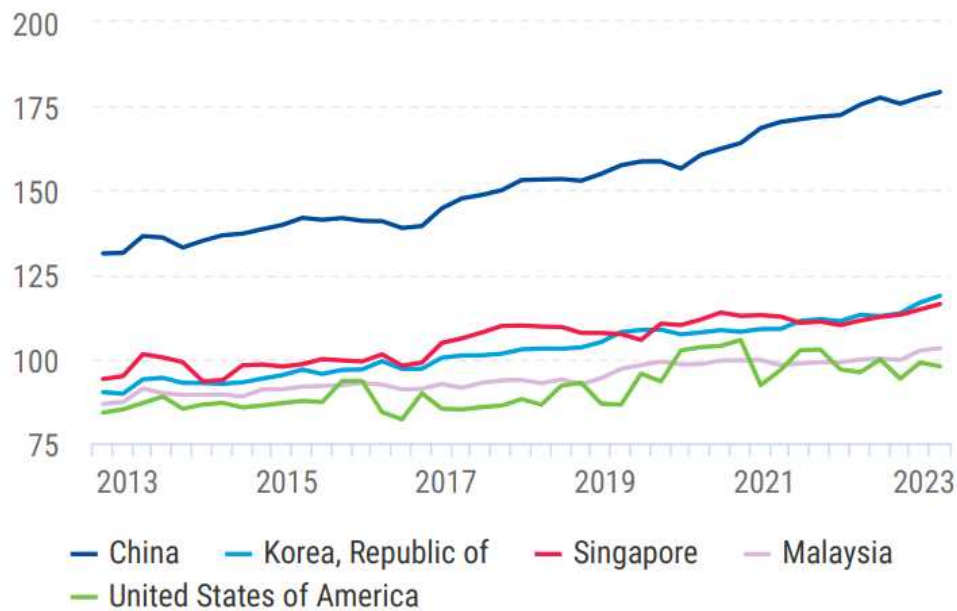
우리나라, '23년 3분기 정기선 해운 연결성 지수(LSCI) 2위...1위는 여전히 중국이 차지

●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이 정기선 연결성 지수(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LSCI) 상위권 국가를 유지함

- 2023년도 3분기 LSCI 기준 중국이 글로벌 정기선 해운 네트워크가 가장 잘 연결된 국가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등이 순위를 이음
- 권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네덜란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파나마와 콜롬비아,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모로코, 동남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와 인도가 선두권에 있음
- 내륙 국가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LSCI를 보이는 총 30개 국가 중 17개가 SIDS이고, 그 중 4개가 최빈국인 것으로 나타남

정기선 연결성 지수(LSCI) 상위 5개 국가

(중국 2006년 1분기 = 100)



China, Singapore and the Republic of Korea – the economies most integrated into global liner shipping networks



Out of the 10 best-connected ports,

8 were in Eastern or South-Eastern Asia, in Q3 2023

Developing economies in Asia handled 59% of world port container traffic in 2021



The median cargo ship in Norway spends only 10 hours at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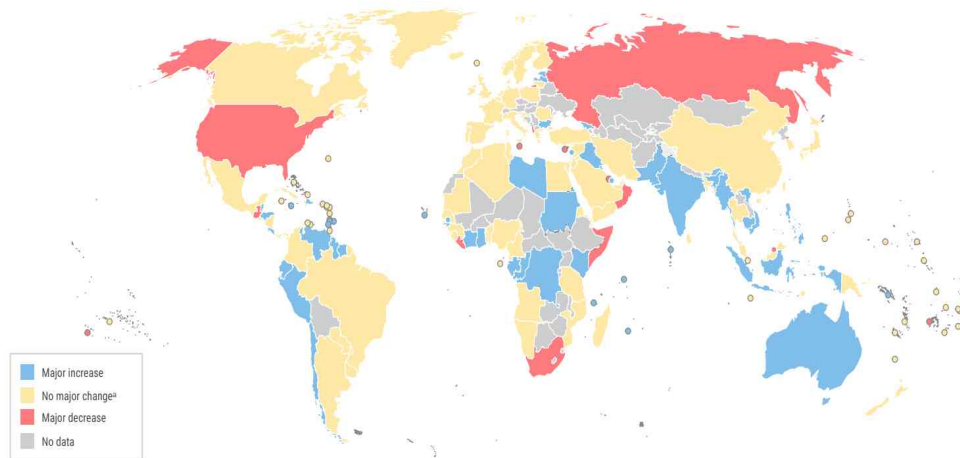
자료 : UN, Handbook of Statistics 2023, p.74

● 연결성 지수가 높은 상위 5개 항만 중 3개는 중국 상하이, 닝보, 칭다오항임

- 그 외 한국의 부산과 싱가포르 항만이 포함되어 있음
- 상위 10위 안에는 8개의 아시아 항만과 2개의 유럽 항만(로테르담 및 앤트워프)이 포함됨
- 가장 높은 연결성을 보이는 30개 항만 중 20개는 아시아, 9개는 유럽, 1개는 아프리카의 Tanger Med에 있음

2023년 정기선 연결성 지수(LSCI) 변화

(단위 : %)



주:

- 2022년 1분기에서 2023년 1분기까지 LSCI의 전년 대비 변화
 - No major change: 전년 대비 5% 미만의 변화
- 자료 : UN, Handbook of Statistics 2023, p.74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세관 업무 개선

- 2023년 1월 18일 양국 세관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서명함

 - MRA를 통해 싱가포르의 인증된 AEO 수출업체가 말레이시아로 선적하는 경우 "통관 서류 확인 및 화물 검사를 덜 받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싱가포르 관세청이 23일 밝힘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에 거래되는 상품은 이제 운송 시간 단축, 전반적인 공급망 성과 개선 등 상당한 이점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관세청은 MRA가 무역 원활화와 무역 보안을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힘

 - 또한 감시가 심한 상황이나 국제 무역이 중단될 때 지속해서 안전한 무역 흐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Tan Hung Hooi 싱가포르 관세청 국장은 새로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AEO-MRA는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약속함으로써 양국 관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총무역액은 연간 평균 1,351억 달러임

스코다, 유럽에서 베트남으로 전기차 수출 개시

- 스코다(Škoda)가 카록(Kodiaq), 코디악(Karoq) 전기차 모델을 체코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하노이에 첫 대리점을 개점함
 - 수출 모델인 카록과 코디악은 유럽산 모델로 완성차 상태로 베트남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이외의 모델은 베트남에서 조립될 예정임
 - Škoda는 베트남 내 차량 판매, 현지 유통 및 생산을 위해 TC Group과 파트너십을 맺음
- 전기차 운송경로는 체코의 그바시니(Kvasiny)에서 철도를 이용해 브레머하펜(Bremerhaven)항까지 운송한 후 Ro-Ro 선으로 싱가포르-호찌민-하이퐁으로 운송됨
 - 각 운송경로 간 소요 시간은 철도로 2일, 브레머하펜항에서 싱가포르항까지 한 달, 싱가포르항에서 호찌민까지 2주임

Škoda 차량 베트남 수출 경로



자료: <https://www.automotivelogistics.media/>(검색일: 2024.1.17.)

➤ 제조사는 완성차로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일부 모델은 완전 해체(CKD, Completely KnockedDown) 키트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밝힘

- 베트남에 출시하는 쿠삭(Kushaq) 및 슬라비아(Slavia) 모델은 완전 해체(CKD) 키트로 인도 푸네에서 수출될 예정임
- 인도 푸네 부품 물류센터는 베트남으로 CKD를 포장 후 수출하기 위해 2023년에 16,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을 오픈함
- CKD는 컨테이너로 베트남에 수출될 예정임

인도 푸네의 Škoda 부품 물류센터



자료: <https://www.automotivelogistics.media/>(검색일: 2024.1.17.)

참고자료: <https://www.automotivelogistics.media/finished-vehicle-logistics/koda-begins-exports-from-europe-to-vietnam/45103.article> (검색일: 2024.1.17.), <https://www.automotivelogistics.media/finished-vehicle-logistics/koda-begins-exports-from-europe-to-vietnam/45103.article> (검색일: 2024.1.17.)

APM Terminal, 플레키마인즈항 신규 컨테리널에 5억달러 투자 계획

- APM Terminal이 미시시피강 어귀인 플레키마인즈 항 West bank에 최첨단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초기 투자계획을 발표함**
 - 플레키마인즈 내 대형 컨테이너선 접안이 가능한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Plaquemines 항과 터미널 배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5억달러 투자 의향서를 체결함
 - Plaquemines 항만당국은 토지 제공을 위해 향후 터미널 확장 계획을 포함한 30년 임대를 추진할 예정임
 - 건설 1단계는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약 81만 m² 규모의 토지에 부두철도 및 네오파나막스 선박의 접안 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터미널 확장 및 최신식 물류시설 도입을 위해 최대 약 364만m²까지 확장가능한 옵션을 포함함
- 본 사업은 미국 남동부지역의 관문항 개발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의 일환임**
 - 개항 시 루이지애나 주 및 미시시피강 해상운송의 중심항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본 개발은 항만 건설단계에서부터 상향된 안전, 효율성 및 생산성 표준화를 적용해, 현대적인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위해 천연가스를 통한 기존 전력과의 하이브리드 전력 공급 등 최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식 간 통합으로 새로운 산업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잦은 폭풍 해일 및 강풍에 따른 피해에 견딜 수 있는 현대 기반시설 기술 및 엔지니어링 도입에 특별히 초점을 맞출 것임

APM Terminal의 Plaquemines 항 투자



자료: APM Terminals 홈페이지

- 미국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다양한 공급망 네트워크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항만으로 조성될 예정임
 - 미국 수출업체의 경우, 경쟁력있는 항만을 통해 제품을 해외로 배송하기 위한 수요가 존재하며, 수입업체의 경우 남부와 중서부의 주요 지역소비자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요구함
 -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항만 계획단계에서 철도, 트럭, 내륙수송 및 항공 등 다각화된 복합운송 경로 옵션을 고려해 개발될 예정임

- 플래키마인즈항 APMT 터미널 개발을 통해 공급망 계획자에게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회복탄력성과 비상 레이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륙시장에 다양한 라우팅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페루 찬카이항 운영 방안 본격 모색

▶ 페루 찬카이(Chancay)항이 1단계 완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항만 운영 구상에 나섰다

- 찬카이항은 페루 카야오(Callao)항 북쪽 80km 위치에 개발 중인 항만으로, Cosco Shipping China와 현지 광산기업인 Volcán이 각각 지분을 60%와 40%로 참여해 2단계에 걸쳐 총 34억불을 투자해 개발중임
- 올해 11월 1단계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며, 최종 완공시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500만TEU에 달함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본 항만은 아시아-남미 화물의 허브항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정상 운영시 최대 10일의 아시아-남미 간 운송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지난 1월 11일 페루 경제재정부(MEF) 주재로 「조선·해운산업 강화를 위한 찬카이(Chancay)-카야오(Callao) 항만 허브」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페루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찬카이항-카야오항 연계 허브 구상을 위한 논의 또한 진행됨
- 본 포럼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찬카이항 1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시설 최적화 및 수출입 물류 운송체계 간소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동시에 찬카이-카야오-호르베 차베스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남미의 항만 및 공항허브 조성 계획을 언급함

▶ 찬카이항 연계 교통인프라, 특별경제구역 지정, 해군조선소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이 현재 논의 중임

- 찬카이항은 스마트항만 및 자동화항만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인프라를 활용한 물류기능 최적화를 위한 도로 연결 인프라, 특별경제구역 지정, 해군조선소(SIMA) 이전 등을 추진 중
- 찬카이항을 통한 안데스 지역의 구리, 브라질 서부지역인 Rondonia, Acre, Mato Grosso 및 Amazonas의 곡물 및 육류 수출을 위해 페루-브라질 간 실무회의가 올해 초 예정됨
- 두 국가 간 육로 개선을 위해 페루 남부-안데스 산맥-브라질을 연결하는 Interoceanic Highway 활성화, 철도연결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함
- 페루정부는 찬카이항 인근에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안콘(Ancón)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Cosco는 브라질산 곡물, 육류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를 가공해 아시아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 중임
- 1조원 규모의 해군조선소 건설사업은 현재 HD현대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입찰 경쟁 중이며, 동 조선소가 완공되면 페루해군 현대화사업을 통해 4억 3370만달러 규모의 함정 23척을 동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임

▶ 찬카이항은 페루의 경제발전계획 중심 인프라라는 가치와 중국의 남미자원 관문항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도 또한 더욱 증가할 것임

- 특히, 최근 리튬, 구리, 곡물 등 남미자원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중국, 미국, EU 간 경쟁에 있어 중국의 남미 물류네트워크 내 전략적 중요도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페루 찬카이항 건설 프로젝트



자료: Cosco shipping Ports chancay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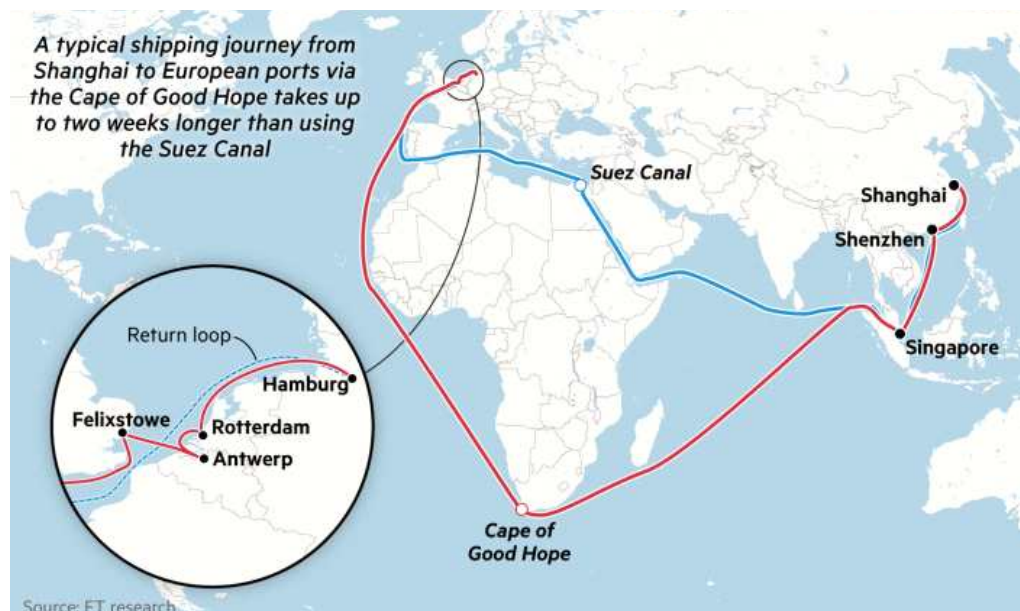
홍해 리스크로 유럽 물류시장 피해 확산 ... 제조업 생산 차질 지속 전망

-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의 핵심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교역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등 핵심 물류루트로 손꼽히고 있으나, 글로벌 이슈 지속 및 무력 충돌로 인해 홍해발 물류대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지역이자 글로벌 해상운송의 요충지로 전 세계 무역량의 15%가 경유하고 있으며, 중동의 원유 수출을 비롯해 수에즈 운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이 홍해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홍해 리스크가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해발 물류대란 문제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일부 글로벌 선사들은 홍해 리스크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 선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드타임이 늘어나면서 유럽 내 원자재 수급 및 재고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홍해발 리스크로 인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선대 규모가 지난 '21년 3월 에버기븐호 좌초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루트는 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약 열흘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이케아를 비롯한 유럽 내 주요 도소매업체는 생산 및 배송 지연을 안내하는 등 재고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또한 중국 및 아세안에서 부품 및 원자재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핵심 부품 공급이 어려워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동아시아 - 유럽 간 해상운송 루트(수에즈 운하 경유 및 아프리카 희망봉 경유)



자료 : www.ft.com, (검색일: 2024.01.23.)

- >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선대가 늘어나면서 특히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 생산이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의 생산 중단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음
 - 테슬라, Volvo, Suzuki 등 유럽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홍해발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핵심 부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 유럽 내 자동차 생산은 대부분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급해 즉시 생산하는 형태로 재고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어 홍해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독일의 폭스바겐은 생산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우회루트를 활용해 핵심 부품을 수급하고 있으나, 물류비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 홍해발 리스크가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내 주요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의 재고 부족 문제 및 원자재 수급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월 중국 춘절을 앞두고 글로벌 수요가 더욱 증가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1.30(화) 09:00 - 3.8(금) 18:00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대상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수행대상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사업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행대상	물류기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지원금액	· 물류기업 단독 수행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온라인 사업설명회('24.01.30~)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채널(<https://youtu.be/OfMtcKTOJJI>)을 통해 실시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T 051-797-4770 E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 T 051-797-4913 E kdong@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